

영암매력한우, '품질'로 승부수 던지다

영암농주농협-(주)CY글로벌 유통 계약 체결 대형 유통망 확보 '안정적인 축산업 기반마련'



영암군은 매력한우 브랜드 경영체인 영암농주농협이 5일 국내외적으로 핵심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밴더업체인 (주)CY글로벌과의 유통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유통경쟁에 뛰어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계약식에는 전동평 영암군수와 조정기 의장, 이재면 영암농주농협조합장, 그리고 롯데그룹 최현열 명예회장 및 CY그룹 김태화 사장과 민경천 한우자조금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는 지난 5월, 영암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유통을 통하여 상호 공영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체결한 군과 CY그룹의 상생협력 업무협약의 결과이다. 협약 이후, 롯데슈퍼 입점을 위해 수차례의 실무간담회를 거쳐 7월 24일에는 전국 68개소 롯데슈퍼 매장에서 매력한우 입점을 기념하기 위한 런칭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본격적인 롯데슈퍼 입점을 위한 롯데슈퍼와 (주)CY글로벌의 직매입 거래계약 그리고 군과 (주)CY글로벌과의 유통망 입점계약이 체결되면서 유통망 입점 준비태세를 갖췄다. 영암매력한우는 청정지역인 월출산의 맑은 공기와 150m 앞반석 지하수, 양질의 사료를 먹여 사육함으로써 고기가 지방이 적고 육질이 연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으로, 2012년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1위)을 수상하는 등 각종 품절대회에서 다수

의 상을 수상해 품질을 입증해왔으며, 올해는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에 선정되어 품질의 우수성을 확고히 굳힌 바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매년 급증하는 한우농가와 사육두수로 인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영암의 자랑 매력한우가 유통전문 밴더업체인 (주)CY글로벌과의 유통 계약을 통한 다양한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산물 입점을 도와 더 많은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은 한우산업 육성을 위하여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 등 27개사업에 82억원을 확보하여 농가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진도 대표 농산물 우수 농산물 인정

미니단호박·구기자 등 평가회서 최우수상 등 수상

진도군은 대표 농산물인 미니 단호박과 애플수박, 구기자가 최근 열린 전남도 농산물 품질 평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특별상을 수상해 우수 농산물로 인정받았다고 6일 밝혔다. 진도군은 전남농업기술원과 '1시간 1특화 작목 미니단호박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송호리 서준기 농가가 출품한 미니단호박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애플수박을 출품한 고우판(군내면 만금리) 농가가 장려상을 농업기술센터 육성 신품종 구기자 '진보 1호'를 출품한 김정기(의신면 칠전리)농가가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 진도군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작목으로 아열대과수와 소비성향 변화에 따른 미니단호박, 애플수박 등을 보급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고의 진도 특산 작목인 구기자 재배 확대를 위해 신품종을 개발하고 새로운

재배법을 보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올해 전남농업기술원과 시·군 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이 재배한 원예 농산물을 전문평가위원과 농협 농산물 마케팅팀이 평가해 시상하는 첫 번째 행사이다. 농업기술원은 품질 좋은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농가는 재배기술 공유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을 재배하며, 농협은 재배 받고 안정적으로 판매해 나갈 계획이 다. 평가회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과수, 채소, 화훼, 버섯 등 31개 작목 92점의 농산물을 출품해 경쟁을 벌였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새로운 소득작목 보급과 특산작목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함평 예덕리 고분군 국가 사적 지정 추진

국립광주박물관서 학술대회 개최

마한 최대 고분유적으로 알려진 함평 예덕리 고분군(전라남도 기념물 제55호)을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8일부터 국립광주박물관에

서 개최된다. 전남도와 함평군 등에 따르면 오는 8~9일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재)대한문화재단연구원과 국립광주박물관 공동 주관으로 '함평 예

덕리 고분군 국가사적지정 추진사업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 현재 함평군 월야면에 보존되어 있는 함평 예덕리고분(전라남도 기념물 제55호), 신덕고분(전라남도 기념물 제143호)은 영산강 유역에 자리 잡았던 마한 사회를 복원하는 데 가장 유요한 학술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와 함평군은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함평 예덕리고분·신덕고분이 갖는 역사적 가치를 집중 조명하고 심도 있는 고고학적 자료검토를 통해 해당 유적과 고분축조세력의 성격을 규명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사적지정을 위한 유적보존방법과 향후 활용방안 등도 논의·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호응'



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의 주민으로, 군은 접종비의 70%(10만 5천 원)를 지원하며 군이 위탁 지정할 병·의원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에는 4억 3백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4,200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목표 지원규모가 조기에 달성되었고, 이후에도 주민들의 접종요청 문의가 쇄도했다. 이에 군은 다시 하반기 2,000명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2억 1천만 원을 확보하고 지난 9월 18일부터 추가 지원을 시작했다. 군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총 목표인원 대비 83%인 5,153명의 주민이 접종비를 지원 받았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금년도 미접종자는 내년에 접종 받을 수 있다.

장성=박종영 기자

강진군, 귀농인 실용 유기농 전문가반 수료식 가져



지난 5일 강진체류형귀농사관학교에서 '귀농인 실용 유기농 전문가반' 수료식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본 교육은 농림식품부로부터 지원받은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비로 추진됐으며 지난 4월부터 하루 4시간씩 총 28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강진으로 귀농한 초보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교육이 진행됐다. 강진귀농사관학교에서 실시한 실용 유기농 전문가 과정은 유기농업의 배경과 의의, 유기원예와 유기축산, 토양의 생성과 발달, 토양관리 등 이론 수업과 유기농 자재 자가 제조 실습 및 활용법, 청초액비 제조 실습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유기농에 관한 전반적인 지

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였다. 봄 거름과 여름의 잦은 태풍 및 긴 장마에도 50여 명의 교육생 중 25명의 귀농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여 수료증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수료자인 안영주(강진읍)씨는 "농사일로 몸이 피곤하지만 김영근 교수님의 유기농업 강의를 들으며 내 땅 내 작물에 유기농을 접목시켜 농사를 지으니 작물 하나하나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전보다 농사에 재미와 흥미를 느낀

다"며 "내년에도 귀농인 실용 유기농 전문가반 수업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예비 귀농인들의 강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강진에서 먼저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체류형귀농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초보 귀농인 작목 선택 지원을 위해 작목 배움교실, 1:1맞춤형 교육,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의 강진 조기 정착을 위해 귀농 북덕방 등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